

# 비격식체 상대 높임 조사 ‘요’의 기능과 생성·변화 과정

허재영\*

|| 차례 ||

- I. 서론
- II. 근대 계몽기 이후 문법서에서의 ‘요’
- III. ‘요’의 기능과 생성 과정
- IV. 결론

## 【국문초록】

이 논문은 근대 계몽기 비격식체 높임의 조사 ‘요’의 기능과, 생성·변화 과정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현대 국어의 비격식체 높임 표현의 조사 ‘요’는 1900년대 이후에 활발히 쓰였다. 그러나 근대 계몽기 이후의 각종 문법서에서는 조사 ‘요’의 기능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지 않으며, 광복 이후 정인승(1949)에 이르러 독립된 도움토씨로 설정되었다. 이처럼 근대 계몽기 이후의 문법서에서 ‘요’를 독립한 형태소로 다루지 않은 까닭은 ‘요’를 비격식체 상대 높임을 실현하는 독립된 조사로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요’가 독립된 조사 형태소처럼 쓰이기 시작한 시점은 1880년대 전후로 보인다. 이러한 예가 1880~1890년대 쓰인 『교린수지』, 『언문말척』, 『한영문법』, 『스과지남』에 비교적 많이 나타난다. 이는 비격식 상대 높임의 조사 ‘요’의 생성과 기능 변화 과정을 밝히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 논문에서는 1880년대 문헌을 대상으로, 종결 어미 ‘-이오’가 ‘요’로 융합되면서 비격식 상대 높임 조사로 변화해 가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주제어 : 높임, 조사, 비격식, 근대 계몽기, 융합.

\*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 교수

## I. 서론

현대 국어의 조사 ‘요’는 비격식체 상대 높임을 나타낸다. 조사 ‘요’가 서술, 명령, 의문법에 두루 쓰여 비격식체 상대 높임을 나타낸다는 사실은 선행 연구에서도 충분히 논증된 바 있다. 그런데 조사 ‘요’의 생성이나 발달 과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 있다.

선행 연구에서 ‘요’의 생성에 대한 가설로는 ‘-오오’ 기원설(최전승 1990, 서정목 1993, 이기갑 1997), ‘-오/소/쇼’와의 관련설(김용경 1999), ‘-이오’ 기원설(김종택 1981, 민현식 1984, 김웅배 1991, 고광모 2000, 최규일 2003, 허재영 2008) 등이 있다. 그런데 ‘요’가 비격식체 상대 높임 조사로 기능한 시점이 1900년대 전후이며, 그 이전의 문헌에서 ‘요’의 기원이나 형성 과정과 관련된 자료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요’의 문법화 과정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고광모(2000)에서 제시한 ‘-이오: -입시오=-요: -(이)비쇼’의 형성설도 1900년대 초기의 자료에 기댄 설명이어서 높임의 조사 ‘요’의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설명은 최규일(2003)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최규일(2003)에서는 먼저 ‘요’의 문법 범주 처리 문제를 다루고, 그 기원과 형성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검토하였는데, 이때 사용한 자료도 주로 1900년대의 문헌들이다. 또한 허재영(2008)은 종결 어미 ‘-이오’가 범용 어미 ‘-지’ 뒤에서 ‘ㅣ’ 모음동화를 거쳐 ‘요’로 형성되었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요’의 생성 과정을 5단계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했지만, ‘요’의 형성 과정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확인이 충분하지 못했다.

그런데 1890년대 한국어 학습서인 언더우드(H.G.Underwood, 1893)의 『한영문법(韓英文法)』이나 게일(J.S.Gale, 1894)의 『스과지남(辭課指南)』 등에는 높임의 조사 ‘요’처럼 보이는 다음과 같은 예들이 상당수 나타난다.

## (1) 1890년대의 ‘요’

## ㄱ. 『한영문법』의 ‘요’

. 더 거시 여호요, 개요?=Is that a fox or a dog? (한영문법, 218):  
의문형

. 이거시 모기가 문디요, 벼룩이 문디요=Is this a mosquito bite  
or a flea bite?(한영문법, 284)

. 공씨 인스하던 이가 누구요? (한영문법, 277)

## ㄴ. 『스과지남』의 ‘요’

. 꿈에 전장에 나가 큰 장스 들을 베고 또 혼아를 디덕홀 지음에  
튼 말이 소리를 벽넛긋치 질너 씨니 윈 몸에 째이 흘넛셔요.(사 인  
신: 299)

. 괴는 쥐장수라 하지요.(사 주수: 333)

. 등 고분 거슨 새우요.(사 수죽: 349)

. 흠손은 미장이 쓰는 기계요.(사 기용: 705)

(1)에 나타난 ‘요’는 형태상으로 볼 때 현대 국어의 조사 ‘요’와 같다. 다만 이때의 ‘요’가 현대 국어와 같이 비격식 상대 높임을 나타내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더욱이 높임법 체계를 기술한 『한영문법』에도 ‘요’에 대한 설명은 없다. 그 이유는 언더우드(1893)이 쓰일 당시에는 ‘요’의 비격식 상대 높임 기능이 뚜렷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를 고려하여 이 논문에서는 ‘요’의 형성 과정과 시기를 고찰하고, 그 요인을 분석하는 데 목표를 둔다. 이를 위해 이 논문에서는 근대 계몽기 이후 문법서에 나타난 ‘요’에 대한 설명을 통해 ‘요’가 비격식 상대 높임 조사 형태소로 인식되기까지의 과정을 기술하고, 문헌 자료를 바탕으로 ‘요’가 생성·변화하는 과정 및 요인을 설명하고자 한다.

## Ⅱ. 근대 계몽기 이후 문법서에서의 ‘요’

### 1. 상대 높임의 ‘요’에 대한 근대 문법서의 설명

근대 계몽기<sup>1)</sup> 높임법 체계를 다룬 최초의 저서는 언더우드(1893)이라고 할 수 있다<sup>2)</sup>. 언더우드(1893: 105-113)에서는 서법에 따라 종결 어미(종결사, terminations)의 등급을 설정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 언더우드(1893)의 상대 높임 등급<sup>3)</sup>

Declarative		Interrogative		Propositive		Imperative	
Used to servants, children, etc.	다	Used to servants and inferiors, the latter is familiar.	느냐 or 으냐	To servants boys, etc.	자	To inferiors.	어라 or 아라
	에		느니 or 으니				세
Used to intimate friends, aged servants, etc.	오 or 소	These are called 반말 or half talk and are used among friends or where one does not desire to be polite.	뇨 or 으뇨	Among equals( Half talk).	지	Half talk to friends, etc.	소
			나				
			지				

1) 국어사에서 근대 국어 설정의 적절성 문제는 홍윤표(1995), 허재영(2011)을 참고할 수 있다. 이 논문에 사용한 근대 계몽기는 허재영(2011)에 근거한다.

2) 언더우드(1893) 이전에 쓰인 로스(J.Ross, 1877, 1878), 스코트(J.Scott, 1887) 등의 선교사들이 쓴 문법서가 있으나 이들 문법서에서도 높임법 체계가 뚜렷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3) 언더우드(1893)에서는 종결 어미의 등급을 서술, 의문, 청유, 명령문에 따라 설정하고,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 결합형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2)는 연구자가 현재 시제를 대상으로 합쳐 작성한 것이다.

	지오		노			Polite among equals	오 or 으오
Polite form among equals	읍지 오 슥읍 지오	Polite terms among equals slightly honorific.	오 or 소			More polite, about like "Please do it."	시오 or 으시오
			지오				
Honorific terms in the order given	느이 다 읍느 이다 슥읍 느이 다	Honorific.	느니 잇가 읍느 니잇 가 or 슥읍 느니 잇가	Honorific	읍세 다 읍시 다	Honorific: used in entreaties .  Used in prayers.	읍시오 or 으읍시오 시읍시오 쇼셔

(2)에서 알 수 있듯이, 언더우드(1893)에서는 청자를 대우하는 방법으로 '낮춤(어린이나 하인)<동등 또는 반말(친구나 나이든 하인)<예사 높임(공손)<아주 높임'의 네 등급을 설정하였다. 다만 청유문에서는 예사 높임이 없는 3등급, 명령문은 '예사 높임'을 '동등<예사 높임<좀 더 높임'으로 세분하고 '아주 높임'도 '간청'과 '기도체'를 나누어 6등급으로 하였다. 이처럼 언더우드(1893)에서는 상대 높임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요'가 나타나지 않는다.

'요'의 존재에 관한 서술은, 1900년대 이후의 문법서에서 나타난다. 이 시기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다카하시[高橋亨](1909)이다. 이에 대해서는 허재영(2008)에서 정리한 바 있다. 이를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3) 高橋亨(1909), <한어문전>

ㄱ. 형용사 활용표 (다카하시 : 37, 39)

[예] 입부다-입부오-입부어요-입부었다-입부었소-입부겠다-입부  
겻소 (종지형에서 ‘-요’의 쓰임 확인)

- 나. 종지형의 부속사 ‘-다, -오, -요, -소’는 종지태 조동사의 현재형이다.
- 디. 형용사 활용 규칙을 종지현재(어요/아요/여요), 종지과거(소), 명령  
(여라/어라)로 체계화된다.
- 리. 동사 및 조동사 : ‘오’와 ‘요’는 모두 일어의 ‘마스(습니다)’가 된다.  
‘오’를 취하는 것은 곧바로 어근에 연결되고, ‘요’는 활용형에 연결된  
다. 그러므로 ‘요’를 쓰는 경우는 적은데, 의미는 공손한 의미가 있  
다. 따라서 부녀자는 필히 요를 오에 사용한다. 또 오는 문어에도  
사용된다.

예) 오오, 보오, 가오, 피오, 먹오오, 세오, 와요, 보아요, 가아, 가요,  
피어요, 세어요

- 미. 연체조동사의 법(다카하시, 140)  
겻소-겻지 : 가겻소, 입부겻소 : 가겻지요(ウヨ)-입부겻지요. 아마  
가겻지요, 아마 가지요.
- 니. -려/랴-오 : 시랴오, 가시람빏가, 가시랴오(존칭의 뜻을 갖고 있음  
151)
- 사. -아/어요  
. 거기 말 다섯 마리 가요, 거기 다섯 마리 말들이 가요(다카하시,  
27)  
. 더 學徒들은 兜흔 帽子들을 쓰고 甁겨요. 더 학도들은 兜흔 모자  
쓰고들 甁겨요. 이 學校生徒는 테니스 들 잘히요.(다카하시, 28)

(3)에서 다카하시는 ‘요’를 종지형의 부속사로 설정하고, 종결 어미 ‘-오’  
나 ‘-소’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 또한 현대 국어처럼 체언이  
나 용언 어미에 자유롭게 붙는 조사로서의 기능보다는 종결 어미 ‘-오’와  
같은 기능을 한다고 본 것이다.

주시경(1910)에서는 ‘기난 익힘’과 ‘뜻의 갈래’에서 상대 높임과 관련된  
서술이 나타난다. 주시경의 ‘기’는 낱말을 이르며, ‘난’은 분류를 의미한다.

주시경(1910)에서는 종결 어미를 ‘싯’을 나타내는 ‘기’로 설정하고, ‘싯’의 갈래를 ‘이름’, ‘물음’, ‘시김’, ‘홀로’의 네 갈래<sup>4)</sup>로 나누었다.

(4) 주시경(1910)의 높임법

ㄱ. ‘오, 다, 으오, 소, 어라, 느냐, 이요, 누나, 도, 다, 더라, 자’는 다 싯기니 ‘오다, 으오, 소, 이요, 더라, 자’와 같은 기들은 다 이름[陳述]인데 ‘오, 소, 이요’는 말하는 이의 뜻을 따르어 이름으로도 쓰고 물음으로도 쓰며, ‘어라’와 같은 기들은 다 시김[命說]이요, ‘느냐’와 같은 기들은 다 물음[問說]이요, ‘누나, 도, 다’와 같은 기들은 다 홀로[自說]라. ‘야’와 같은 기들은 다 놀나거나 늦김이니 그 갈래는 만들지 안이하노라. -주시경(1910: 53)

ㄴ. 싯의 갈래

一. 이름[이르는 말로 싯맺는 것]

(본) 다, ㄴ다, 는다, 앓다, 엇다, 겻다, 리라, 으리라, 앓으리라, 엇으리라, 앓겻다, 엇겻다, 요, 이요, 오, 으오, 소, 앓소, 엇소, 겻소, 앓겻소, 엇겻소, 요, 이다, 오이다, 읍나이다, 읍나이다. 이읍나이다, 으읍나이다, 습나이다, 더라, 이더라, 더이다, 이더이다, 읍더이다, 읍더이다, 읍더이다, 으읍더이다, 습더이다, 시읍더이다, 앓읍더이다, 시더라, 지, 이지, 지요, 이지요, 읍지요, 읍지요, 습지요.

(풀이) 우리나라가 곱다.(이 말에 ‘다’가 이름싯이니 이르는 말로 싯맺는 것이다.)

二. 물음[묻는 말로 싯맺는 것]

(본) 냐, 으냐, 이냐, 노, 이노, 으노, 나냐, 앓나냐, 엇겻나냐, 나노, 락, 으랴, ㄴ가, 인가, 은가, 야, 이야, 지, 이지, 요, 이요, 오, 으오,

4) 주시경(1910)에서 제시한 ‘이름[陳述]’, ‘시김[命說]’, ‘물음[問說]’은 화자와 청자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화자의 의향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홀로[自說]’는 청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범주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느낌’의 범주를 별도로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홀로’의 범주에는 감탄문뿐만 아니라 청자를 고려하지 않는 화자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문장이 모두 포함된다.

소, 앓소, 엇소, 겻소, 앓겻소, 엇겻소, 지요, 이지요, 시오, 으시오, 요 이가, 오이가, 읍나이가, 읍나이가, 이읍나이가, 읍나이가, 으읍나이가, 습나이가, 더이가, 이더이가, 읍더이가, 읍더이가, 읍더이가, 습더이가, 으읍더이가, 시읍더이가, 앓읍더이가, 앓습더이가, 더냐, 이더냐, 더뇨, 시더뇨, 이더뇨, 시더냐, 시더뇨, 읍지요, 습지요.  
(풀이) 네가 무엇을 배오나냐.(이 말에 ;나냐가 물음꾸이니 못는 말로 꺾맺는 것이라.)

三. 시김[시기는 말로 꺾맺는 것]

(본) 아라, 어라, 오, 으오, 시오, 읍소서, 소서, 으소서, 읍소서, 시읍소서, 오시읍소서, 시읍시오, 십시오, 으시오.  
(풀이) 글을 읽어라.(이 말에 ‘어라’가 시김꾸이니 시기는 말로 꺾맺는 것이라.)

四. 홀로[홀로 하는 말로 꺾맺는 것]

(본) 다, 이다, ㄴ다, 는다, 앓다, 엇다, 리다, 으리다, 앓겻다, 엇겻다, 웃으리다, 엇으리다, 로다, 이로다, 으리로다, 고나, 이고나, 는고나, 앓고나, 엇고나, 겻고나, 리고고나, 이르고나, 도다, 이도다, 는도다, 앓도다, 엇도다, 겻도다, 지, 이지, 앓지, 엇지, 겻지, 앓겻지, 냐, 야, 나냐, ㄴ가, 인가, 뇨, 이뇨, 락, 으랴.  
(풀이) 우리나라가 곱고나.(이 말에 ‘고나’가 홀로꾸이니 홀로 하는 말로 꺾맺는 것이라.)  
(잡이) 홀로 하는 말에는 스스로 이르는 꺾과 스스로 못는 꺾이 있나니라.

(4ㄱ)은 우리말이 화자의 의향을 기준으로 서술, 명령, 의문, 자술(감탄을 포함)의 형태로 나눌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를 나타내는 형태소가 어미임을 의미한다. (4ㄴ)은 의향을 나타내는 어미의 종류로 ‘요’는 이름[陳述]과 물음[問說]을 나타내는 어미로 분류되었다. 이는 ‘이요’, ‘지요’ 등의 형태가 ‘이+요’나 ‘지+요’로 인식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1910년대의 문법 연구에서 ‘요’가 독립된 형태소로 인식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주시경(1910)에 나타나는 ‘이요’나 ‘지요’는 ‘이+요’나 ‘지+요’로 인식되지 않는 한 형태소이다.

주시경 이후 굴곡 범주와 준굴곡 범주를 구분하지 않고 ‘토’를 설정한 김두봉(1971, 1922), 김희상(1927)의 상대 높임법도 주시경(1910)과 크게 다르지 않다. 김두봉(1917, 1922)에서는 종결 어미를 ‘맺’(맺는다는 말)으로 부르고, 맺의 갈래를 ‘홀로맺’, ‘이름맺’, ‘무름맺’, ‘시김맺’의 네 유형으로 나누었다. 김두봉(1917, 1922)에서는 상대 높임 체계를 ‘높음’, ‘가온’, ‘낮음’의 세 등급으로 설정했는데<sup>5)</sup>, ‘요’와 관련된 설명은 없다. 김희상(1927)에서는 ‘종지토’를 설정하고 여기에 ‘평술토’, ‘의문토’, ‘공동토’, ‘명령토’가 있으며, 별도로 ‘감탄토’를 두었다. 이는 체계상 다소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주시경(1910)과 김두봉(1917, 1922)의 체계와 큰 차이가 없다.

이처럼 1920년대까지의 문법서에서는 굴곡 범주와 준굴곡 범주를 구분하지 않고, 문장을 종결하는 형태소를 ‘토’로 묶어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요’를 독립된 형태소로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우세했다.

## 2. 독립된 형태소로서의 ‘요’에 대한 설명

현대 국어에서 ‘요’는 비격식 상대 높임을 나타내는 조사로 쓰인다. 이는 ‘요’가 종결 어미의 일부가 아니라 체언이나 문장 다음에 붙어 쓰이는 준굴곡 범주의 형태소임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이완웅(1926)은 ‘요’를 독립된 형태소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완웅(1926)에서는 문장을 종결하는 형태소를 ‘조동사’로 설정했는데, 그 가운데 체언 아래에 붙

5) 김두봉(1917, 1922)의 상대 높임 체계는 다음과 같다.

	이름	물음(무름)	시김
높음	읍나이다	읍더이까	읍소서
가온	네	ㄴ가	계
낮음	니라	더나	아라

는 조용사 현재형으로 ‘요’를 설정하였다<sup>6)</sup>. 곧 ‘누구요?’ 또는 ‘나요’에 나타나는 ‘요’를 독립된 형태소로 인식한 셈이다. 그러나 이완웅(1926)에서 ‘요’를 최소 형식으로서 인식했다라도 이 형태소의 기능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나타나지 않는다.

최현배(1937: 309-341)에서는 ‘요’를 조사로 설정하지는 않았지만, “마침뻬에는 그 말을 듣는 사람을 높이는 정도에 따라 ‘해라(아주 낮춤), ‘하계(예사 낮춤), ‘하오(예사 높춤), ‘합쇼(아주 높춤)’의 네 가지의 다름이 있고, 또 等外로 반말이 있나니 이를 마침뻬의 등급이라 하나니라.”라고 풀이하고, 문장 종결 형식에 따라 상대 높임의 등급에 사용하는 종결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5) 최현배(1937)의 종결 어미

	아주 낮춤	예사 낮춤	예사 높춤	아주 높춤	반말
베품꼴 (서술형)	두루 쓰임: 다, (으)니라, (더,리)라, (으)마, 느니라(나니라), 노라 느낌에만: 구나(고나), 도다	네, (으)ㄴ세, 데, (는,았,겠)구 려	오(으오, 소), <u>지요</u> <u>아요(어요)</u>	니다(느이다, 나이다, 노이다), 이다	아(어), 지
물음꼴 (의문형)	나, (더)냐, 느냐, 느뇨, 느니, 니, (으)르소냐, (으)라	(는)가, (을)가, (던)가, (으)르손가	오(으오, 소), <u>아요(어요)</u> , <u>지요</u>	니가, 느이가(나 이가)	아(어), 지
시김꼴 (명령형)	라(으)라, 아라(어)라, 여라, 너라, 거라), 려무나(렴)	게, 소, 구려	오(으오, 소), <u>아요(어요)</u>	소서(으소서)	아(어), 지
꼭임꼴 (칭유형)	자	세	(읍)세다(시다)	(으)십)세 다(시다)	야, 어

6) 이에 대해서는 허재영(2008)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최현배(1937)에서도 ‘요’는 예사 높임의 ‘지요’나 ‘어요’와 분리되지 않는 형태소로 기술되어 있다. 그런데 최현배(1937: 885-886)에서는 ‘비가 옵니다 그러.’와 같은 문장에서 ‘그러’를 풀이씨 아래에 쓰이는 느낌토씨<sup>7)</sup>로 설정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풀이씨에 붙는 느낌토씨는 문장 뒤에 붙는 보조사를 의미한다. 그러나 최현배(1937)의 느낌토씨 목록에는 ‘그러’만 나타날 뿐, ‘요’는 보이지 않는다. 이는 최현배(1937)에서 ‘요’를 비격식체 상대 높임 조사로 인식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높임의 조사 ‘요’에 대한 설명은 정인승(1949)에서 처음으로 확인된다. 중등학교용 교과서로 편찬된 정인승(1949: 84)에서는 ‘도움토씨(보조조사)’를 세 갈래로 설정하고, 그 가운데 ‘마침도움토씨(종지보조조사)’에 ‘요’가 있음을 뚜렷이 밝혔다.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6) 정인승(1949)의 도움토씨

자리에는 관계없이 이름씨나 어찌씨나 또는 월의 밑에 붙어 뜻을 도와주는 토씨를 이름이니 아래와 같다.

- ㄱ. 두루도움토씨(통용보조조사): 이름씨나 어찌씨의 아래에 두루 쓰이어 뜻을 보태기도 하고 자리토씨의 구실을 겸하기도 하는 토씨: 은, 는, 만, 도, 마다, (이)나, (이)든지, (이)야, (이)니들, (이)라도, 부터, 까지, 조차, 커녕...따위.
- ㄴ. 마침도움토씨(종지보조조사): 월의 마친 뒤에 붙어 뜻을 돕는 토씨: 마는, 요, 그러 따위.
- ㄷ. 부름도움토씨(호칭보조조사): 상대자를 부를 때, 그 이름 아래에 붙어 부르는 뜻을 돕는 토씨: 아, 야, 여, 시여 따위.

(6-)에서는 ‘요’가 문장이 종결된 뒤에 붙어 뜻을 돕는 기능을 수행하고

7) 최현배(1937)에서의 조사 체계는 ‘자리토씨’, ‘이음토씨’, ‘느낌토씨’로 이루어져 있다. 느낌토씨는 입자씨에 붙는 것과 풀이씨에 붙는 것 두 종류로 설정되었다.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정인승(1949) 이후의 문법서에서는 ‘요’가 높임의 기능을 수행하는 준굴곡 범주의 조사라는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최현배(1965: 651)의 느낌토씨에 ‘요’가 추가된 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최현배(1965)에서는 마침법의 예사 높임에서 ‘-아요(어요), -지요’를 한 형태소로 인식하면서도, 느낌토씨 ‘요’에 대해 “낱말이나 이은말이나 월 끝에 자유스럽게 붙어 쓰히는 것에는 ‘요’, ‘말이야’ 등이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는 정인승(1949) 이후 높임의 조사 ‘요’가 독립한 형태소로서 문법서에 서술됨을 의미한다.

### Ⅲ. ‘요’의 기능과 생성 과정

#### 1. 근대 계몽기 문헌에 나타난 ‘요’의 기능

문장 종결형에서 상대를 높일 때 ‘-요’의 형태가 빈번히 쓰인 때는 1880년대 이후로 보인다. 예를 들어 스코트(1887), 언더우드(1893), 게일(1894) 등이 있는데<sup>8)</sup>, 이 세 문헌에서 찾은 문장 종결사 ‘요’는 32개에 이른다.

(7) 1890년대 선교사들의 문법서에 나타난 ‘요’

가. ‘이오’의 음운 변이로 보이는 것

. 포퓰은 각읍 수령에 시비를 하니 중헌 법이요. (사 형정: 768)

8) 높임의 조사 ‘요’가 ‘-이오’의 축약형인 어미 ‘-요’와는 달리 독립된 형태소로 분석될 수 있는 시점은 1900년대 이후의 일로 보인다. 김용경(1999), 고광모(2000)를 비롯한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는 방각본 소설류를 근거로 19세기 후반부터 ‘요’가 쓰인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방각본의 판각 연대를 정확히 고증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요’의 형태 분화는 『교린수지』, 『스과지남』, 『언문말칙』, 『한영문법』 등이 나온 1880년대로 추정할 수 있다. 다만 1864-1869년 사이에 필사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남원고사』에 ‘누구요’라는 표현이 나타나기 때문에 ‘요’의 형성 시기를 1860년대로 추정할 수도 있다.

- . 원슈 감는 거시 설치요. (사 행실: 925)
- ㄴ. ‘종결 어미+요’처럼 보이는 구조
  - . 꿈에 전장에 나가 큰 장스 들을 베고 또 혼아를 디덕홀 지음에 툰 말이 소리를 벽녁긋치 질너찌니 윈 몸에 째미 흘녓셔요. (사 인신: 299)
  - . 궤는 쥐장수라 흐지요. (사 주수: 333)
  - . 물에 드러가면 죽을나고요? (한영문법, 184)
  - . 어제 아니 혼다고 흐엿시니 오늘은 흘나고요. (한영문법, 183)
- ㄷ. ‘체언+ 요’의 구조
  - . 여기가 내 시계 일허 브리던 디요. (한영문법, 331)
  - . 여기가 손돌이 강에 빠지던 디요. (한영문법, 332)
  - . 여기서 빙표 뵈는 디요. (한영문법, 335)
  - . 여기요.(한영문법, 331)
  - . 등 고분 거슨 새우요. (사 수족: 349)
  - . 그 사름은 부자요.(언문말칙, 121)
  - . 내 동너 친고요.(언문말칙, 141)

(7)에 나타난 것처럼 세 문헌에서 찾은 ‘요’의 구조는 ‘이오’의 음운 변이형으로 보이는 것(‘이’ 순행동화 형태), ‘종결 어미+요’처럼 보이는 것, ‘체언+요’처럼 보이는 것의 세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sup>9)</sup>, 이 가운데 (ㄴ, ㄷ)은 단순한 음운 변이형이 아니라 조사 ‘요’처럼 보인다. 그러나 ‘종결 어미+요’의 구조나 ‘체언+요’의 구조가 출현한다고 하여 ‘요’가 비격식체 높임의 조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언더우드(1893)에서도 ‘요’에 대한 설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스코트(1887)에서는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9) 32개의 ‘요’의 구조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구조	음운 변이형	종결+요	체언+요	총합계
개수	2	4	26	32

(8) 스코트(1887: 50)

Present Indicative third person only-

일다 ilta

이라 ira } it is: they are

이오 io요 yo

(8)에서 ‘이오’와 ‘요’는 동일 기능을 수행하는 형태소로 설명되었는데, ‘이오’가 축약되면 ‘요’가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두 형태소는 음운 변이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오’는 서술과 의문에 두루 쓰이는 범용 어미<sup>10)</sup>라는 점을 고려할 때, 1880~1890년대에 나타나는 ‘요’의 분포도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 있다. 세 문헌에서 ‘요’는 서술문 17개, 의문문 15개의 분포를 보인다. 이 가운데 ‘-어요’, ‘-고요’를 제외하면 모두 ‘이오’의 변이형으로 볼 수 있는데<sup>11)</sup>, ‘-어요’와 ‘-고요’에 붙는 ‘요(이오)’는 조사처럼 보인다. 이는 높임의 조사 ‘요’의 생성 조건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종결 어미 ‘-이오’가 범용 어미나 체언 다음에 ‘요’의 형태로 굳어질 경우 조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 2. ‘요’의 생성·변화 과정

‘요’가 독립된 형태소로서 보조사의 기능을 담당하기 시작한 것은 1900년대 이후의 일로 보인다. 허재영(2008)에서 밝힌 바와 같이 1907년 이후의 ‘요’는 서술법, 의문법에 두루 쓰인다. 그뿐만 아니라 인용이나 비종결

10) 권재일(2005)에서는 서술, 의문, 명령, 청유 등 여러 의향법에 두루 쓰이는 어미를 범용 어미라고 하였다.

11) (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셔(사-어)요’, ‘고요’를 제외하면 ‘이오’의 변이형인 ‘이요’ 또는 축약형 ‘요’로 볼 수 있다.

형태의 체언 다음에 쓰이는 형태도 자주 발견된다. 이러한 표현은 근대 계몽기 교과서나 공문서 등과 같은 격식적인 문장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이는 1900년대 이후 ‘요’가 비격식체 높임 표현의 보조사로 기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허재영(2008: 489)에서는 ‘요’가 ‘-이오>요’를 거쳐 형성되었으며 범용 어미 ‘지’ 뒤에 붙어 쓰이면서 보조사로 기능했을 것이라는 가설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880년대의 ‘요’는 독립된 형태소는 아닐지라도 ‘지오>지요’ 이외의 경우에도 폭넓게 쓰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881년 일본인 학습자를 위해 편찬한 『교린수지』에는 ‘-지요, -리요, -읍시오’와 같은 ‘-이오’의 변이형으로 추정되는 표기가 다수 나타나며, ‘-이오’에서 ‘-이’가 생략된 형태로 보이는 ‘체언+요’의 구조도 빈번히 나타난다. 이 책은 한자어 표제항에 해당하는 문장을 예시하고 일본어로 대역한 한국어 학습서이다. 다음은 『교린수지』에서 ‘요’로 표기된 예들이다.

(9) 『교린수지』의 ‘요’ 표기

ㄱ. 서술형 어미

- . [昏] 날이 어두워쓰니 그만하고 도라 가읍시오.(교 1:2)
- . [春] 봄의는 빅초가 나고 온갖 씨이슬 심으니 스시 중의 웃씀이요.(교 1: 6)

ㄴ. 의문형 어미

- . [全當] 던당을 잡고 돈을 주면 무슨 의심 잇스리요.(교 2: 46)
- . [苦蠶]기는 그릇시아 무어세 쓰리요.(교 3: 23)
- . [夕] 저녁 때 되면 티양 도라가고자 하시니 그 옛쩨 일이요.(교 1: 11)

ㄷ. 명령형 어미

- . [合當] 합당허니 그리 허시오.(교 4: 17)

ㄹ. 연결 어미

- . [靄] 애는 년기도 아니요, 안개도 아니로되 날빛을 ㄱ리옵네다.  
(교 1: 6)
- . [正月] 정월은 상원날이 웃씀이요, 대개 스시 가절(四時佳節)  
일기는 다 태음력으로 니름이올시다.(교 1: 8)
- . [竹] 대는 두 가지 이쓰니 므디 존 거슨 식대[女竹]요 므디 굴근  
거슬 왕대[男竹]이라 ㅎ옵네.(교 2: 26)
- . [文武守令] 부윤은 문관이요 목스 부스 군슈 관관 현령 현감  
찰방(察訪) 들은 ㅎ 문관 ㅎ 무관이요 첨스 만호 권관 별장 들은  
다 무관이오니.(교 1: 38)
- . [戶] 지게는 방에 큰 문이요 저근 문을 창이라 ㅎ느니라.(교 2:  
33)

ㅁ.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 . [三月] 삼월 삼일은 큰 명일이요.(교 1: 8)
- [四月] 스월에는 팔일이 인느니라.(교 1: 8)
- . [京] 서울은 인군 계신데요.(교 2: 36)[003]
- [村] 촌은 빅성이 사느니라.(교 2: 36)
- . [五臟] 오장은 심과 간과 비와 폐와 신이요.(교 1: 52)
- [六腑] 육부는 담과 위와 대장과 소장과 방광과 삼초니라.(교 1:  
52)

(9)의 ‘요’는 ‘(이)오’의 변이형으로, 그 가운데 (9ㄱ-ㄷ)은 종결 어미 ‘-이오’의 변이형인 ‘-이요’ 또는 ‘-요’이며, (9ㄹ)은 연결 어미 ‘-이요’이다. 또한 (9ㅁ)은 『교린수지』의 표제항 배열로 인해 나타나는 구조로 종결 어미인지 아니면 연결 어미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운 구조이다<sup>12)</sup>. 이를 고려하

12) 이 책은 상단에 표제항을 두고 이에 해당하는 문장을 배열하는 방식을 취했으므로, 두 개의 단문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이어진 문장으로 보아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9ㅁ)의 ‘삼월’ 항목과 ‘사월’ 항목은 단문으로 볼 경우 종결 어미 ‘-이오’의 변이형으로 보아야 하지만, 이어진 문장으로 볼 경우 연결 어미 ‘-이요’



여 『교린수지』에 나타나는 '요'의 구조와 문법 범주의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0) 『교린수지』에 쓰인 '요'의 구조와 문법 범주

형태	명령	서술	의문	연결	계
리+요			14		14
시오	1				1
옵시오		1			1
이요(종결)		1	1		2
이요,(연결)				7	7
지+요		1			1
체언+요				3	3
총합계	1	3	15	10	29

(10)과 같이 '요'로 표기된 형태는 의문법이나 연결법에 많은 점이 특징이다. 이는 의문형 어미 '리오'나 연결형 어미 '이오'<sup>13)</sup>는 'ㅣ' 모음동화의 영향을 받아 '-요'로 표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10)에 분포하는 '-요'는 준굴곡법의 조사 '요'로 재구조화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연결형에 나타나는 '체언+요'의 구조이다. 앞의 (9ㄷ, ㄱ)에 나타나는 '다섯 시+요', '식대+요', '인군 계신 데+요'에서 '시, 식대, 데'는 모두 명사이다. 이들 구조는 '시+(이)오, 식대+(이)오, 데+(이)오'의

로 보아야 한다. 여기서는 대등한 두 문장이 이어진 구조로 보일 경우 연결 어미로 처리하였다.

- 13) 중세 국어에서는 나열이나 첨가를 나타내는 연결형 어미로 '-고'가 쓰였다. 허웅(1983: 583)에서는 "'-고'가 '르', '판이, 안땀음씨끝 '-으리-', 잠음씨 '-이-' 밑에서 줄어진다."고 하였으며, '-구'로 변동하는 일도 있다고 하였다. 현대 국어에서는 '-이오'를 표준으로 잡고 있으나 19세기까지의 국어에서는 '-이오'의 빈도수가 높으므로 '-이오'를 기본으로 잡는다.

변이형으로 볼 수 있으나 1890년대는 ‘식대’와 ‘데’에 들어 있는 ‘ㅈ’와 ‘ㅊ’가 단모음으로 발음되었음을 고려할 때, ‘이오’의 음운 변이형이 아니라 그 결과로 융합된 ‘-요’로 보아야 할 것이다. 더욱이 이들 연결 어미의 후행절이 생략될 경우 ‘요’ 자체로 문장이 종결된다. 그럴 경우 ‘요’는 준굴곡의 ‘요’로 보인다.

‘요’가 조사처럼 인식되기 쉬운 ‘체언+요’의 구조는 스코트(1887), 언더우드(1893), 게일(1894)의 회화부에서 더 빈번히 나타난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이 세 저서에 나타나는 ‘체언+요’의 구조는 서술법과 의문법에 많다는 점이다. 세 저서에 나타나는 ‘요’ 표기의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1) 스코트(1887), 언더우드(1893), 게일(1894)에서의 ‘요’ 표기

형태	서술	의문	연결	계
요(이오)	2	2		4
이오,			1	1
서요/고요/지요	2	2		4
체언+요	13	11		24
계	17	15	1	33

(11)의 분포가 『교린수지』와 달라진 점은 ‘서술법’과 ‘의문법’의 빈도가 높아졌다는 사실이다. 특히 서술법에 쓰인 ‘체언+요’으로 ‘새우+요, 부자+요, 친고+요’와 같이 ‘요’가 융합된 형태로 표기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요’가 ‘-이오>-요’로 굳어졌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는 의문형에서도 마찬가지로 ‘누구+요?, 얼마+요?, 죽을라고+요?, 부자+요?’와 같이 ‘-이오(-이고>-이오)>-요’로 융합된다<sup>14)</sup>. 이처럼 ‘요’가 융합되면서 ‘서요, -고요, -지

14) 중세 국어의 의문형 어미 ‘-이고/-이오’는 의문사가 있을 경우 쓰이는 설명형 의문 어미이다. ‘-이고’는 ‘으니/-으리-’ 밑에서 ‘-이오’로 쓰이며, ‘-(으)니오’나 ‘-(으)리

요'의 구조에서는 '-셔+요, -고+요, -지+요'로 재분석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처럼 서술법, 의문법, 연결법에 쓰인 '-이오'가 '-요'로 융합되어 한 형태소로 인식되면서 체언이나 범용 어미 다음에 쓰일 경우 '요'는 준굴곡 범주의 조사로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 과정에 대한 추론 내용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2) '요'의 생성과 변화 과정

시기	중세 국어	19세기			20세기 초
변화 과정	의문형: '-이고/-이오' 연결형: '-이오'	-이오>-요	'-요'를 한 형태소로 인식	'요'를 어미의 일부가 아니라 독립된 형태소로 인식	비격식체 상대 높임 조사로 가능
변화 원리		음운 변동	융합	재구조화	
범주	어미 (굴곡 범주)		변화 과정	조사 (준굴곡 범주)	

(12)와 같은 추론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높임의 등급이며, 다른 하나는 연결형의 종결화이다.

선행 연구를 종합해 볼 때 우리말 높임법은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눌 수 있다. 대체로 격식체는 언더우드(1893) 이래 4등급으로 구분하는 경향이 우세하며, 비격식체는 최현배(1937) 이후로 '반말'에 '요'가 붙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은 '요'를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요는 '-(으)노', '-(으)료/료'로 줄어지기도 한다. 중세 국어에서도 '-이고/-이오'의 '이'가 줄어들어 '체언+고/오'의 구조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체언+요'의 구조는 보이지 않는다. 이는 '-이오'가 융합된 '-요'가 19세기에 이르러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 (13) 『표준국어대사전』의 ‘요’

ㄱ. ((주로 해할 자리에 쓰이는 종결 어미나 일부 하계할 자리에 쓰이는 종결 어미 뒤에 붙어))청자에게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격식을 갖추어야 하는 상대에게는 잘 쓰지 않는다.

¶ 돈이 없어요/기차가 참 빨리 가지요/잠이 안 오는걸요/새싹이 돋는군요/늑장 부리다가는 차 시간을 놓치게요?/언니, 나를 모르겠어요?/친구가 많이 아프던가요?

ㄴ. ((체언이나 부사어, 연결 어미 따위의 뒤에 붙어))청자에게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 마음은요 더없이 좋아요./어서요 읽어 보세요./그렇게 해 주시길만 하면요 정말 감사하겠어요.

1880-1890년대의 문헌을 살펴본 결과 ‘요’가 (13ㄱ)처럼 쓰이는 경우는 ‘-어+요, -지+요, -고+요’에 불과하며 ‘-가+요, -걸+요, -게+요’는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나가, -나’ 등의 의문형 어미나 ‘-게’와 같은 추정 또는 의도, 서술이나 의문 또는 명령법에 두루 쓰이는 ‘-어, -지’와 같은 범용 어미에 붙는 ‘요’의 용법은 1907년 이후의 문헌에 나타난다. 이 점은 1880-1890년대의 ‘요’가 비격식체 높임 표현의 ‘요’라기보다 서술이나 의문형의 ‘이오’ 변이형으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달리 말해 ‘이오’의 변이형인 ‘요’가 한 형태소로 융합되면서 비격식체 높임의 보조사화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언더우드(1893)에서 설정한 ‘반말’의 개념을 고려할 때 적절해 보인다. 이는 언더우드(1893)의 ‘반말’ 출현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언더우드(1893)에서는 서술법과는 달리 의문법에서 ‘-느뇨, -나, -지, -노’와 명령법에서 ‘-게, -쇼’를 ‘-오, -소, -지오’와 구분하여 ‘친구 사이나 존대 표현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용하는 ‘반말’을 설정했다. 이러한 반말은 화자와 청자의 친밀도에 따라 높임과 안높임이 중화되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현배(1965: 264)에서는 반말을

“해라’와 ‘하게’, ‘하게’와 ‘하오’의 중간에 있는 말이니 그 어느 쪽임을 똑똑히 들어내지 아니하며, 그 등분의 말맛을 흐리게 하려는 경우에 쓰히느니라. 그러므로 반말은 아주 높임(極尊稱) 아님만은 분명하니라.”라고 설명하였다.

1880-1890년대 (10口)과 같이 연결법으로 보이는 ‘-요’는 ‘-니라’와 등급이 같다. 특히 ‘체언+요’의 구조는 『교린수지』의 경우 반말체의 연결법으로 쓰인다. 스코트(1887), 언더우드(1893), 계일(1894)에서는 연결법으로 쓰인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높임의 등급을 판단하기 어렵지만, ‘체언+요’가 서술법과 의문법으로 쓰일 경우 높임의 등급을 판단하기 어렵다. 이처럼 높임의 등급이 불분명해진다는 점은 조사 ‘요’가 새로운 기능을 획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연결법에서 후행절이 생략될 경우 ‘-이오’나 ‘-요’가 서술법과 중화되면서 높임 관계가 불분명해지기 때문이다<sup>15)</sup>. 이처럼 ‘-요’의 높임의 등급이 불분명해지면서 비격식적 담화 상황에서 이 형태소가 ‘-오, -쇼’와 같은 등급으로 인식되어 간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00년대의 조사 ‘요’가 범용 어미 ‘-어, -지, -게, -고’ 뒤에 붙는 경우가 많은 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범용 어미의 경우 높임의 등급이 불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요’를 붙여 청자를 높여주는 셈이다. 허재영(2008:476-477)에서 ‘저 길동아버지가요, 전에 가디고 나가시려고 벽당에 두신 모본던 열 필 보니시라구요.’(1907년 몽몽 작 ‘쓰러져 가는 답’)와 같은 문장에서 격조사나 인용 조사 뒤에 ‘요’가 쓰일 수 있음을 밝혔듯이, 1900년대의 ‘요’는 비격식적 높임의 조사로 굳어졌음을 의미한다.

15) 이는 조사 ‘요’의 비격식성과도 무관하지 않다. 왜냐하면 생략형은 격식적인 표현에서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격식적인 대화에서는 말끝을 흐리거나 생략하는 경우가 많으며, 높임 관계를 명확히 드러내지 않을 경우도 많다.

#### IV. 결론

이 논문의 목표는 상대 높임을 나타내는 조사 ‘요’의 생성 과정과 요인을 밝히는 데 있다. 현대 국어의 비격식체 높임 표현의 조사 ‘요’는 1900년대 이후에 활발히 쓰였다. 그러나 근대 계몽기 이후의 각종 문법서에서는 조사 ‘요’의 기능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지 않으며, 광복 이후 정인승(1949)에 이르러 독립된 도움토씨로 설정되었다. 이처럼 근대 계몽기 이후의 문법서에서 ‘요’를 독립한 형태소로 다루지 않은 까닭은 ‘요’의 기능이 뚜렷하지 않았거나 규범 문법 연구에서 비격식적인 표현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조사 ‘요’처럼 보이는 표현은 1880-1890년대 쓰인 『교린수지』, 『언문말칙』, 『한영문법』, 『스과지남』에 비교적 다수가 나타난다. 이 점에서 이 논문은 1880년대 종결 어미 ‘-이오’가 ‘-요’로 융합되면서 비격식체 상대 높임 조사로 변화해 갔음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요’의 생성과 변화 과정을 (12)와 같이 ‘-이오(종결, 연결 어미)>-요(융합형)>요(조사로의 재구조화)’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설명하였으며, ‘요’가 비격식체 상대 높임으로 쓰이게 된 이유를 비격식적 대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략 형태에서 찾고자 하였다.

## 【참고문헌】

- 고광모, 「상대 높임의 조사 '-요'와 '-(이)쇼'의 기원과 형성」, 『국어학』 36, 국어학회, 2000, p.259-282.
- 고영진, 「국어 동사의 문법화」,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 권재일, 『20세기 초기의 국어 문법』,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5.
- 권재일, 『한국어문법사』, 박이정, 1998.
- 김두봉, 『김덕조선말본』, 1922, 탑출판사(1977, 역대한국문법대계).
- 김두봉, 『조선말본』, 1917, 탑출판사(1977, 역대한국문법대계).
- 김용경, 「상대높임씨끝 '-오/소'의 발달 과정에 대한 연구」, 『한말연구』 제4집, 한말연구학회, 1998, p.29-52.
- 김용배, 『전라남도 방언 연구』, 학고방, 1991.
- 김종택, 「국어 대우법 체계를 재논함-청자 대우를 중심으로-」, 『한글』 172, 한글학회, 1981, p.26-27.
- 김희상, 『울이글들』, 영창서관, 1927, 탑출판사(1977, 역대한국문법대계)
- 몽몽, 「쓰러져 가는 답」, 『대한유학생회보』 제3집, 1907, 아세아문화사(1976, 개화기학술지총서 19), p.530-535.
- 민현식, 「개화기 국어의 경어법에 대하여」, 『관악어문연구』 9, 서울대국문과, 1984, p.141-143.
- 서정목, 「국어경어법의 변천」, 『한국어문』 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p.140-151.
- 유길준, 『대한문전』 1909, 탑출판사(1977, 역대한국문법대계).
- 유길준, 『조선문전』 1904, 탑출판사(1977, 역대한국문법대계).
- 이기갑, 「한국어 방언들 사이의 상대 높임법 비교 연구」, 『언어학』 21, 언어학회, 1997, p.210-211.
- 이완웅, 「조선어발음급문법」, 『조선문조선어강의록』 상, 1926. (2004, 허재영 편저, 역락출판사), p.341-369.
- 정인승, 『표준 우리말본』, 을유문화사, 1949.
- 주시경, 『국어문법』, 1910, 탑출판사(1977, 역대한국문법대계).
- 최규일, 「'-요'에 대한 총체적 연구」, 『한국어 의미학』 12, 한국어 의미학회, 2003, p.171-228.
- 최전승, 「관소리 사설에 반영된 19세기 후기 전라 방언의 특질-경어법 체계를 중심으로-

- 로』, 『한글』 210, 한글학회, 1990, p.174-175.
- 최현배, 『우리말본』(열한 번째 고침), 정음문화사, 1965.
- 최현배, 『우리말본』, 연희전문학교 출판부, 1937, 탑출판사(1977, 역대한국문법대계)
- 최현배, 『중등조선말본』, 정음사, 1947.
- 편무진 엮음, 『교린수지: 해제·본문·색인(한일어)』, 홍문각, 2000.
- 허웅, 『우리 옛말본-형태론-』, 샘문화사, 1983.
- 허재영, 『국어사에서 근대 계몽기의 설정과 사전 편찬의 필요성』, 『한국사전학』 17, 한국사전학회, 2011, p.267-288.
- 허재영, 『높임의 조사 ‘요’의 문법화』, 『한말연구』 제23집, 2008, p.473-493.
- 홍윤표, 『국어사 시대 구분의 문제점과 문법사의 측면에서 본 시대 구분』, 『국어학』 25, 국어학회, 1995, p.25-28.
- 高橋亨, 『韓語文典』, 1909, 탑출판사(1977, 역대한국문법대계).
- 藥師寺知囑, 『文法註解 韓語研究法』, 1909, 탑출판사(1977, 역대한국문법대계).
- 鄭國采, 『現行朝鮮語法』, 1926, 탑출판사(1977, 역대한국문법대계).
- 朝鮮總督府, 『朝鮮語文法及會話書』, 1917, 탑출판사(1977, 역대한국문법대계).
- H.G.Underwood, *An Introduction to the Korean Spoken Language*(韓英文法), 1893, 탑출판사(1977, 역대한국문법대계)
- J.Ross, *Corean Primer*, Shanghai American Presbyterian Mission Press. 1877, 탑출판사(1977, 역대한국문법대계)
- J.S.Gale, *Korean Grammatical Forms*(스과지남), Trilingual Press, 1894, 탑출판사(1977, 역대한국문법대계)
- J.Scott, *A Corean Manual or Phrase Book*(언문말칙), Shanghai American Presbyterian Mission Press, 1887, 탑출판사(1977, 역대한국문법대계)



**Abstract**

A Study on the Formation and Change  
of the Informal Polite Postpositional Word 'YO[요]

Heo, Jae-Young

This study aims to explain the formation and change of the Korean morpheme 'YO'. This morpheme's function is polite postpositional word in modern Korean. But the modern enlightenment times, this morpheme was not formed. In advanced researches, this morpheme appeared in 1900's. For example Heo(2008) exclaimed that this morpheme was formed from the polite termination '-IO[ㅇ]'. Heo(2008) wrote the morpheme was showed *the Dongnip-sinmun*(the daily newspaper).

But I search for the textbooks that the foreign Korean learners used to learned in during the modern enlighten times. This morpheme appeared in modern enlighten times, *the GYORINSUJI*(the Korean textbook for the Japanese), *An Introduction to the Korean Spoken Language*(written by H.G.Underwood, 1893), *the Korean Grammatical Forms*(written by J.S.Gale, 1894) and *the Corean Manual or Phrase*(written by J.Scott, 1887) for example.

I found out the morpheme 'YO' was formed from the polite terminative ending '-IO[ㅇ]'. In 1889-1890, '-IO'(ending) was not functioned the postpositional word. I reached the conclusion of the grammaticalization as follows:

Period	Middle Ages	in the 19th Century			in the early 20th century
Process	-IO/-IGO?(question ending) -IO,(connected ending)	-IO>-YO	'-YO' was recognized one unit.	'YO' was separated from the ending.	informal postpositional word
Principles	euphonic changes		fusion	restructure	
Category	ending (inflection)		the process of changes	postpositional word (lexical item)	

Key-words : polite, informal, postpositional word, the modern enlighten times,  
fusion.

허재영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 조교수.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26번지 단국대학교 인문관 319호

전화번호 : 010-9267-9947 (031-8005- 3879)

전자우편 : hjy435@hanmail.net

이 논문은 2012년 3월 15일 투고되어  
2012년 4월 10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2년 4월 20일 게재 확정됨.